

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물음] “다른 사람들앞에서 만이라도 교회에서 처럼 얇전하게 굴수는 없었니?”라는 문장을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띄어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지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답] “다른∨사람들∨앞에서만이라도∨교회에서처럼∨얇전하게∨굴∨수는∨없었니?”와 같이 띄어 쓰십시오.

제시하신 문장 중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만한 항목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예와 같이 둘 이상의 사물을 나열할 때, 그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거나, 그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 더 있음을 나타내고 ‘등(等)’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을 때에는 의존 명사로 보아 앞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예) 연필, 지우개, 자 들을 학용품이라고 한다.

그러나 ‘들’이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접미사 혹은 보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예:

학생들, 노인들, 꼬마들, 어서들 오게, 먹어들 보게)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람들’과 같이 ‘들’을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앞에서”라는 표기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와 ‘앞’이라는 단어를 붙여 쓰고 있어서 잘못되었습니다. ‘단어별로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국어에서 단어로 다루어지지만 앞말과 긴밀한 연관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항상 앞말에 붙여 씁니다.

“앞에서 만이라도”나 “교회에서 처럼”과 같이 어떤 명사 뒤에 조사가 여러 개 연속되는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틀리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사는 언제나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앞에서만이라도’라는 구성에서 ‘에서’는 처소(장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고, ‘만’은 한정 의미 나타내는 보조사이며, ‘이라도’는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의 활용형이므로, 이들을 모두 그 앞말에 붙여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처럼’도 ‘에서’와 ‘처럼’이라는 두 부사격 조사가 연결된 구성이므로 ‘교회에서처럼’과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굴수는 없었니?”에 쓰인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서 ‘굴V수는 없었니?’라고 해야 합니다.

물음 “아저씨, 이 우산 좀 (수리/수선)해 주세요.”라는 문장에서 ‘수선’과 ‘수리’ 중 어느 단어가 맞습니까?
(황용하,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답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수선(修繕)은 ‘낡거나 험 물건을 고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참고] 繕: 기울 선, 고칠 선), 수리(修理)는 ‘고장 나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이라는 의미를 지녀서 뜻이 매우 비슷합니다. 실제로 국어사전에서는 이 두

말을 비슷한 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말을 쓸 수 있는 대상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는 쓸 수 없음, ?는 부자연스러움의 표시로 썼음.)

옷 {수선/*수리}, 구두 {수선/*수리},
 자전거 {수선/수리}, 우산 {수선/수리},
 양철 지붕 {?수선/수리}, 발동기 {*수선/수리}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교적 크기가 작고 단순한 구조의 사물은 ‘수선’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게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계를 수리한다’고는 해도 ‘기계를 수선한다’고는 하지 않으며 ‘구두를 수선한다’고는 해도 ‘구두를 수리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자전거’는 ‘수선’이나 ‘수리’를 모두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우산의 천’을 꿰맨다면 ‘수선’이 더 적절할 것 같고, 스테인리스로 된 ‘우산 살’ 부분이나 중심 막대 부분, 손잡이 따위를 고친다면 ‘수리’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선’이나 ‘수리’는 비슷한 말이지만 대상이 무엇인지 또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적합한 것을 골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음 평소엔 무심코 발음하던 낱말들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잘 생각이 나질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네.” 하는 문장에서 ‘이렇네’의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아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답 ‘이렇네’의 발음은 [이런네→이런네]로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받침 ‘ㅎ’은 그와 결합되는 소리에 따라 여러 가지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 제12항에서는 ‘ㅎ’ 음의 발음에 대해 따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ㄴ’으로 시작된 어미 ‘-는(다), -네, -나’ 등의 앞에서 ‘ㅎ’은 [ㄴ]으로 동화되기 때문에 질문하신 ‘이렇게’는 [이런네]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놓는’은 [논는]으로 ‘쌍네’는 [싼네]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겹받침 ‘ㄴㅎ’ 뒤에 ‘ㄴ’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 ‘ㅎ’은 발음되지 않는데, 다만 ‘ㄹㅎ’ 뒤에서는 ‘ㄴ’이 [ㄹ]로 발음됩니다.

끊는[끈는]	끊네[끈네]	끊나[끈나]
끊는[끝는→끝른]	끊네[끝네→끝레]	끊나[끝나→끝라]

‘ㅎ(ㄴㅎ, ㄹㅎ)’ 뒤에 ‘ㅅ’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ㅅ’을 [ㅅ]으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당소’는 [다쏘], ‘맑소’는 [만:쏘] ‘싫소’는 [실쏘]로 각각 발음합니다. 마찬가지로 ‘끊습니다’와 ‘끊사오니’도 [끈쑈니다], [끈싸오니]로 발음합니다.

끝으로 ‘ㅎ(ㄴㅎ, ㄹ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쌍은[싸은]	쌍을[싸을]	쌍으니까[싸으니까]	쌍이다[싸이다]
끊은[끄는]	끊을[끄늘]	끊으니까[끄느니까]	끊이다[끄니다]

다만, 한자어나 복합어에서 모음과 ‘ㅎ’ 또는 ‘ㄴ, ㄹ, ㅁ, ㅇ’과 ‘ㅎ’이 결합된 경우에는 본음대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가끔 ‘전화’를 [저놔]로 발음해야 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전화’는 [전화]로 발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신학’도 [시

낙]이 아닌 [신학]으로 ‘피곤하다’도 [피고나다]가 아닌 [피곤하다]로 발음하여야 합니다.

물음 “서진이는 선물을 받은지/받은 지 이틀이 지나자, 누가 선물을 한지/했는지 알게 되었다.”에서 ‘지’의 띄어쓰기와 바른 표현이 궁금합니다.

(최혁철,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답 “서진이는 선물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나자, 누가 선물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는 띄어 쓰는 경우와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의미할 때에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선물을 받은 지 이틀이 지났다.”에서 ‘지’는 선물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뜻하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1)의 예에서 ‘지’는 의존 명사로 쓰인 것으로 모두 띄어 씁니다.

(1) ㄱ. 운동한 지 두 달이 되었다.

 ㄴ. 집을 떠나온 지 7년이 지났다.

그러나 ‘해체’를 써야 할 자리나 간접 인용절에 쓰여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니지’(예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안녕하십니까.)나,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 데 쓰는 연결 어미 ‘-니지’(예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앞말과 붙여 씁니다. 질문하신 “누가 선물을 한지/했는지 알게 되었다.”에서 ‘지’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연결 어미의 일부분이므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니지’는 ‘-이다’의 어간, 받침 없는 형용사 어간, ‘르’ 받침인 형

용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뒤에 붙여 씁니다. ‘하다’는 동사까닭에 ‘-나지’가 붙을 수 없으므로 ‘선물을 한지’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동사 어간 또는 어미 ‘-으시-’, ‘-었-’, ‘-겠-’ 뒤에는 (2ㄴ)과 같이 ‘-는지’로 씁니다. 따라서 ‘선물을 했는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2ㄷ)과 같이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는 ‘은지’를 씁니다.

- (2) ㄱ.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른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세 사람 몫의 일을 해낸다.
조약돌이 얼마나 둥근지 참 신기하다.
- ㄴ. 그가 왜 웃는지 모르겠다.
그가 일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아라.
- ㄷ.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어느 말을 정말로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난감했다.

[물음] ‘신고’는 [신꼬]로 발음하는데 ‘안기다’는 [안기다]로 발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걸’ 할 때 ‘할걸’의 발음은 [할결]로 발음됩니다. 표기는 된소리가 아닌데 발음을 된소리로 하는 것은 표준 발음법에 어긋나는 것인가요? 표준 발음법이 궁금합니다.
(유지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답] ‘신고’의 표준 발음은 [신:꼬]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24항에 어간 받침 ‘ㄴ(ㄴ), ㅁ(ㅁ)’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환경은 같더라도 ‘안기다’의 표준 발음은 [안기다]입니다.

표준발음법에 따르면 다음 용어들의 발음은 아래와 같습니다.

꺼안다[꺼안따]	얏고[안꼬]	엳다[언따]
삼고[삼:꼬]	더듬지[더듬찌]	남지만[남:찌만]
신기대[신기다]	감기대[감기다]	옴기대[옴기다]

이는 용언 어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람도[사람도]’, ‘사람과[사람과]’라든가 ‘신도[신도]’, ‘신과[신과]’ 등과 같이 체언에 조사가 붙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할결’은 [할결]이 표준 발음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27항은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으)르’ 다음에 의존 명사가 오거나 보조 용언이 올 때 이러한 된소리 되기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으)르’ 다음에 자립 명사가 올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끊어서 말할 때는 예사소리로 발음하지만 그 외에는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듯하다[할뜨타다]	할 법하다[할뻬파다]	할 성싶다[할쌩싹따]
만날 사람[만날싸람, 만날 사람]	할 도리[할또리, 할 도리]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할결[할결], 할께[할께],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밖에[할빠께], 할진대[할찐대]로 발음합니다.

그러나 관형사형 어미 ‘-(으)ㄴ, -는, -던’ 등과 같이 ‘ㄴ’ 받침을 가진 어미 뒤에서는 ‘간 사람[간사람], 가는 사람[가는사람], 가던 사람[가던사람]’처럼 예사소리로 발음합니다.